

결핵관리, 세계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김성광 /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부설 복지사의원장

'93년 7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3개월에 걸친 국제결핵관리자 연수가 일본결핵연구소에서 실시되었다. 국제결핵관리자 연수란 세계보건기구와 일본결핵연구소가 공동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정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결핵관리능력을 배양시키는 훈련코스. 현재 60여개 국, 1천여 명이 이 과정을 거쳐 각국 결핵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993년 7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일본 동경 소재 일본결핵연구소에서 실시한 국제결핵관리자 연수코스에 참석하였다.

국제결핵관리자 연수코스란 세계보건기구와 일본결핵연구소가 공동으로 인류로부터 결핵을 퇴치하기 위하여 결핵관리에 종사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정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결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시키고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훈련코스이다.

1963년도에 이 과정이 생긴 이래 전세계 60여개 국으로부터 약 천 명이 이 과정을 거쳐 각국의 결핵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까지 약 30명이 이 과정을 마친 세계적인 결핵 연수과정이다.

금년에는 필자를 비롯하여 인도,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예멘, 이집트,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페루, 솔로몬 아일랜드, 중국, 영국, 일본 등 19개 국으로부터 23명이 참석하였는데 모두들 일본국제협력부의 재정적인 지원하에 참석하였으나 필자만이 본회의 예산으로 참석할 수 있었다.

일본결핵연구소는 일본결핵예방회 산하의 연구소로 동경 교외의 키요세라는 작은 시(市)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키요세 시는 과거에 일본의 결핵유병률이 높고 항결핵 화학요법이 도입되기 전에 주



▲ 의료관리학을 강의하신 레잉(Laing) 교수(앞줄 좌에서 3번째)와 함께. 2번째 줄 좌에서 3번째가 필자.

로 결핵요양원이 많아 결핵촌이라고 불리던 지역이 오늘날 도시로 발전된 곳으로서 한때 이곳에는 수십 개의 결핵요양원이 있었다 한다.

지금도 이 도시 곳곳에는 나병원 및 나연구소, 노인병원, 소아병원 등 많은 의료기관과 의학 또는 보건관계 연구소가 밀집되어 있어 의료기관의 집단 지역과도 같은 곳이다.

연수 과정은 첫째, 강의에 의한 교육, 둘째, 현장견학, 셋째, 토론 및 발표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훈련 등으로 이루어졌다.

강의에 의한 교육은 결핵역학, 면역학, 화학 요법, 병리학, 세균학, 후천성 면역결핍증과 결핵, 결핵관리의 경제적인 측면, 결핵관리의 사회학적인 관점, 일차 보건진료, BCG, 통계학 등 매주 1

~2과목에 대하여 각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듣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특히하게 새로운 것은 없었으나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결핵에 관한 미국 출신 사다 박사의 강의가 흥미를 끌었으며, 결핵관리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하여 강의한 역시 미국출신의 머레이는 20대 후반의 젊은 경제학자로서 꽤 인상적이었다.

현장견학 과정은 2주간에 걸쳐 니이가타 현과 동북 지방의 3개 현(아오모리, 아키타, 이와테)을 방문하여 그곳의 결핵관리 및 일반보건 관리체계를 직접 보고 접할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에게는 제일교포 복송선인 만경봉호의 기항지로서 이름이 낯설지 않은 니이가타와 혼슈 섬의 북쪽 끝 지역으로 쌀과 사과가 유명한 아오모리를 비롯한 동

북 지방 3개 현은 과거에 일본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결핵의 유병률이 높았던 지역이었다 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일본 전국 평균보다도 결핵의 유병률이 낮은 지역으로 일본에서도 결핵관리가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지역들 중의 하나라고 한다.

이들 지역을 방문하였을 때 먼저 현청을 방문하여 현의 보건관계자로부터 각 현의 결핵관리 과정과 현재의 결핵상황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들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의 결핵관리가 다른 지역에서보다 더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현 정부와 일본결핵예방회의 니이가타 또는 동북지방 현 지부의 노력 외에도 항결핵여성회라는 여성단체의 활발한 활동 때문이었다 한다.

항결핵여성회란 한 마을 단위로 결성

된 결핵퇴치를 위한 여성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으로 공중보건 간호사와 함께 전후 일본의 결핵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오늘날에는 일본에서 결핵이 거의 퇴치되어감에 따라 결핵관리에 관한 활동보다는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의 예방으로 그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주민 건강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들 항결핵여성회의 자원봉사자들이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기록 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이들 자원봉사자 및 보건관계자와의 직접 접촉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지역의 각 현의 인구가 100~200만 명인 데 비해 결핵 환자는 불과 100명 미만인 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들이 결핵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 자원봉사자들의 주민 건강진단 모습.



아직도 많은 관심과 예산을 결핵사업에 쏟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우리의 경우엔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훈련과정은 앞서 강의를 통한 교육내용과 현장견학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낀 점에 대하여 토론하거나 세미나 또는 워크 샵 시간을 통하여 일정한 문제를 갖는 주제를 주고 피교육자 스스로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문제접근 방식을 검증받는 교육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새로이 고안한 훈련교재를 통해 결핵관리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같은 훈련과정은 항상 주입식 또는 암기식 지식습득에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용어인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영어권 국가로부터 온 참석자들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던 필자에게는 가장 힘들고 달갑지 않은 시간들이었으나 시간이 경과하고 발표하는 횟수가 반복될수록 문제의 분석력, 문제해결의 접근방식 그리고 발표력의 향상을 가져와 필자에게 있어서는 전과정을 통해 얻은 값진 수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또한 토론과정을 통해 개인능력의 향상뿐 아니라 우리나라 외에도 연수코스에 참여한 각국의 결핵문제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여러가지 측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상과 같은 결핵관리 능력배양을 위

한 교육 및 훈련 못지 않게 중요했던 것은 국제교류의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방은 개인별로 사용했으나 취사장과 식당, TV실, 세탁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개인적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필자의 경우엔 여러 나라 사람들과 골고루 우정을 나누고자 하였으나 우리나라와 외모나 사고방식 등이 비슷한 중국과 일본의 참석자들과 각별히 정을 나눌 수 있었으며, 특히 탁구에 있어서의 한·중 대결은 다른 참석자들에게도 좋은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일본국제협력부와 민간국제교류클럽의 주선하에 많은 모임에 참석하여 결핵관리코스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일본에 와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105일간의 결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연수기간을 통해 느낀 점은 진료실에서 환자를 직접 대하는 것만이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필자에게 질병을 환자 개개인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적인, 나아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으며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결코 낮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문제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제해결에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며 이 글을 마칠까 한다. †